

#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 상류주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raditional Motives in Upper-Class Houses of Chosun Dynasty

최지연\*/ Choi, Ji-Yeon

박영순\*\*/ Park, Young-So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and meanings of the motives shown in the traditional houses. Research methods to achieve this purpose are review of literature, field survey, and contents analysis. Traditional houses were divided into 3 parts such as architectural elements, interior elements and decoration elements, and total of 163 motives were collected out of it. As a result, it was founded that roof of the architectural element, and doors and windows of the interior elements are shown the most of the motives. Motives were divided into two types, realistic motives and imaginative motives, and both types are shown evenly. Meanings of the motives are classified into 'protection', 'good-luck', 'long-life', 'ideology', and 'decoration', and the motives of meaning of good-luck showed the most variety.

키워드 : 전통문양, 전통주택의 구성요소 및 공간, 문양의 종류, 문양의 상징성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 현대건축은 사회적 변환기를 겪으면서 한국건축 및 실내 디자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체성이 있는 디자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즉,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할수록 문화의 고유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사회전반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통건축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각 요소에 대한 의미와 상징성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들이 요구된다.

한국문양은 한국인의 전통적 미의식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문양과는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건축 및 실내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전통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문양은 매우 많은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후·풍토와 같은 자연적 요인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적 산물이다. 이렇게 형성된 문양은 오랜 기간동안 반복·변형의 과정을 통해 한 문화권에서 고유한 상징성과 특성으로 자리잡게 된다.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은 감성적인 요소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의미론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주택의 구성요소 및 공간적 특색에 따라 다른 문양을 사용하여 상징적 의미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전통주택에서의 다양한 구성요소 및 공간에 따라 문양은 어떠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현대 실내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 전통문양의 상징성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통건축의 문양연구는 특정부위에 집중되어 있거나, 한 계층에 국한되어 있는 연구가 주류이며, 주택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구성요소 및 공간에 따라 의미론적으로 문양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전통 주택의 다양한 장소에 사용되는 문양의 파악은 올바른 전통성 표현에 필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 또한 건축에서 상징성을 띤 문양의 사용은 건축 및 실내의 개념적 깊이를 한 단계 높일 것이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 및 상징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통문양은 고유의 정신적·문화적 소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주택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전통주택은 한국인의 사상적 성향과 문화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현대건축 및 실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 정회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부회장,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부 생활디자인전공 교수

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을 구성요소별 및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상징성을 파악하여, 공간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 문양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한국 전통주택의 구성요소와 문양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내용분석하여 전통주택의 문양이 사용된 구성요소 및 종류를 파악한다.

셋째,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을 유형화하여, 그 상징성 및 의미성을 파악한다.

##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상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대적 범위를 조선시대로 한정한다. 이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조선시대에 와서 완성된 것으로 보는 관점에 근거를 둔 것이다<sup>1)</sup>. 또한 문양이라는 것은 어느정도의 제한환경이 안정된 상황하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연구의 대상범위를 상류주택으로 제한한다.

수집할 자료의 내용은 건축구성요소(기단, 초석, 벽체, 처마, 공포, 지붕, 대문, 굴뚝), 실내구성요소(기둥, 창호, 천장, 바닥, 난간), 장식요소(물חק, 편액)에 사용된 문양으로만 그 범위를 제한한다. 주거공간 내부에 생활용품, 가구 등에도 문양이 사용되었으나, 현존한 고택내부에는 전통적 생활용품이나 가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 2. 연구방법

전통주택의 문양은 현장조사법과 문헌고찰법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에 사용된 문양을 조사하기 위해 선정된 주택은 보존상태가 양호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중요민속자료로 하였다. 선정된 현장조사장소는 문화재지정주택이 가장 많은 경상도의 양동마을 14채를 비롯하여, 하회마을 6채, 충청도 4채를 포함하여 총 24채를 선정하였다. 답사를 통한 조사자료만으로는 주택에 나타난 모든 문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문헌자료를 추가하였다. 문헌자료는 주택의 공간 및 부위별 문양이 모두 촬영된 문헌<sup>2)</sup>을 참조하였다. 이 문헌에 있는 6채의 국가지정문화재 주택을 포함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24채와 함께 최종적으로 총30채의 조선시대 상류주택에 사용된 문양을 수집·분석하였다. 이상의 선정된 조사대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1)신인호, 한국전통 주택의 실내색채 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11  
2)신영훈, 한국의 살림집(하), 열화당, 1976

<표 1> 선정된 전통주택

	명칭
현장조사 장소	관가정, 무침당, 안동양진당, 양동락선당, 양동이원봉가옥, 양동이원용가옥, 양동이동기가옥, 양동이희태가옥, 양동수졸당, 양동이향정, 양동수문정, 양동심수정, 양동인락정, 영동송재문가옥, 영동송재취가옥, 영동김선조가옥, 칠성손동만세가옥, 음성김주태가옥, 충효당, 하회복촌택, 하회남촌택, 하회주일재, 하회하등고택, 향단
문헌조사 자료	강릉선교장, 아산맹씨행단, 김현용가옥, 청도문강고택, 최덕중순당, 안동의성김씨종택

현장자료수집방법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스케치를 병행하였다. 사진촬영은 채광이 좋은 상태인 오전11시부터 오후3시 사이에 이루어졌고, 대상공간과 주택부위 및 재료를 함께 기재하고, 사진은 컴퓨터화면으로 판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영훈(1983), 주남철(1997), 박영순 외(1998)의 분류체계를 근거로 하여 조사대상을 크게 건축구성요소, 실내구성요소, 장식요소로 분류하였다. 건축구성요소는 기단, 초석, 벽체, 처마, 공포, 지붕, 대문, 굴뚝으로 세분화하였고, 실내구성요소로는 천장, 바닥, 기둥, 창호, 난간으로, 장식요소는 물חק, 편액으로 세분화하여 문양의 여부 및 내용을 조사하였다. 전통주택의 조사부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전통주택의 조사부위

조사자료	분류내용	
	건축구성요소	기단/ 초석/ 벽체/ 처마/ 공포/ 지붕/ 대문/ 굴뚝
전통 상류주택	실내구성요소	천장/ 바닥/ 기둥/ 창호/ 난간
	장식요소	물חק/ 편액

## 3.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특성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전통문양의 상징성을 분류하였고, 수집된 자료로 전통주택에 나타난 문양의 종류를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에 따른 문양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전통주택에서 문양이 갖는 상징성을 도출하였다.

### 3.1. 전통문양의 분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문양은 의식주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난 것을 총괄한 것으로 그 종류가 상당히 많았으며, 분석의 틀로 사용하기 위해 문양종류에 대한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분류체계에는 6권의 책<sup>3)</sup>에서 조선시대에 사용된 문양들이라 보

3)전통문양에서 신상재(1987), 신영훈(1976), 안상수(1986), 임영주(1986), 허균(2000), 그리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1996)이 대표적 학자 및 단체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 6권의 저서에서 나온 문양의 분류체계를 종합·정리하였다.

는 모든 문양을 포함시켰고, 이의 결과로 조선시대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지는 문양이 총 99개가 수집되었다. 문양의 분류 체계는 크게 현실에서 실존하여 눈에 보이는 실체를 모티브<sup>4)</sup>로 한 '실제적 모티브의 문양'과 실존하지는 않으나 생각이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적 모티브의 문양'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과정에서 책에 따라 명칭은 다르나 같은 문양을 이르는 단어는 한 명칭으로 통합하였고, 같은 형태의 문양이지만 의미가 크게 다른 문양은 다른 명칭이나 분류를 달리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실제적 모티브의 문양'은 동물문, 식물문, 곤충문, 자연문, 기물문, 글자문으로 분류하였고, 이 중 동물문은 짐승, 조류, 어류로 나누었으며, 식물문은 꽃문, 초문, 나무, 과실로 분류하였다. '가상적 모티브의 문양'은 동물문, 식물문, 기하학 패턴, 길상문, 사신문, 사령문, 십장생문, 십이지상문, 귀면문으로 나누었다.

<표 3>은 분류기준과 문양의 구체적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문양의 분류체계

구분		문양 내용	
실제적 모티브의 문양	동물문	짐승	코끼리, 사슴, 호랑이, 두꺼비, 토끼, 박쥐, 거북
		조류	학, 공작, 닭, 원앙, 앵무, 오리,
		어류	잉어, 물고기
	식물문	꽃문 (초화문)	연꽃, 매화, 국화
		초문	덩굴문, 난초, 곡두
		나무	대나무, 보리수, 버드나무, 소나무
		과실	참외, 영지, 복숭아, 석류,
	곤충문	나비, 매미	
	자연문	일월상문, 구름문, 수파문	
	기물문	청동술, 별전, 금강저, 석쇠, 팔보, 칠보	
글자문	길(吉)자, 만(萬)자, 회(喜)자, 회(回)자, 수(壽)자, 복(福)자, 아(亞)자, 정(井)자		
가상적 모티브의 문양	동물문	해태, 삼족오, 금계	
	식물문	보상화, 태평화, 내일꽃	
	기하문	방승, 부귀기호, 연환, 빗살, 쫓대살, 십자, 둥근, 마름, 세모살, 오니	
	길상문	태극, 팔괘, 여의두	
	사신문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사령문	용, 봉황, 거북, 기린	
	십장생문	해, 산, 물, 들,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십이지상문	호랑이, 용, 말, 닭, 토끼, 소, 원숭이, 돼지, 쥐, 개, 뱀, 양	
	귀면문	귀면	

4)모티브는 작품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를 말한다.(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p.2035)

### 3.2. 전통주택의 구성요소별 사용된 문양의 종류

조사된 문양자료를 통해, 실제적 모티브의 문양에서 동물문은 박쥐문, 거북문, 학문이 사용되었고, 식물문은 꽃문, 덩굴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 모티브의 문양 중 곤충, 자연, 기물문은 전통주택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가상적 모티브의 문양에서는 기하문과 길상문이 사용되었고, 사신문에서는 현무문이 사용되었다. 십장생에서는 불로초문이 사용되었고, 귀면문은 대부분의 주택에서 사용되었다. 가상적 모티브의 문양에서 동물문, 식물문, 십이지상문 등은 없었다.

다음, 사용된 문양의 주택의 구성요소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4, 표5와 같다.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 중 <표 4>는 실제적 모티브의 문양, <표 5>는 가상적 모티브의 문양으로 나누어 출현된 빈도를 나타냈다.

<표 4> 전통주택에 나타난 실제적 모티브의 문양

		실제적 모티브의 문양											계			
		동물문		식물				글자문								
		박쥐	거북	학	꽃	곡두	덩굴문	길자	회자	아자	용자	정자		만자		
															짐승	조류
간속 구성 요소	기단														0	
	초석														0	
	외부벽체							1	1						2	
	처마					1									1	
	공포						6								6	
	지붕	일반지붕				9	1			5						15
		담장지붕				4	13	1								18
	대문														0	
	굴뚝														0	
	실내 구성 요소	기둥														0
바닥															0	
천장							1								1	
내부벽체															0	
창호		일반창호									8	5	9	6	28	
		부엌문														0
장식 요소	난간	2							1	2					5	
	올확		1												1	
	편액						3								3	
계		2	1	4	22	3	10	1	7	10	5	9	6	80		

※ 숫자는 출현된 빈도를 의미 함

<표 5> 가상적 모티브 문양에 의한 분류

		가상적 모티브의 문양											계		
		기하문		길상문		사신문		사형문		심장생문		귀면문		추상문	
		빗살	등근	마름	태극	여의두	현무	용	봉황	블로초문	귀면문				추상문
건축 구성 요소	기단													0	
	초석													0	
	외부벽체													0	
	처마		3										1	4	
	공포													0	
	지붕	일반지붕				3			9	2	6	11			31
		담장지붕	9						7	1					17
	대문		1	2	2		1							3	9
	굴뚝														0
실내 구성 요소	기둥													0	
	바닥													0	
	천장													0	
	내부벽체				1									1	
	창호	일반창호	8												8
		부속문		2	2	4								2	10
	난간			1	1										2
장식 요소	물확													0	
	편액								1					1	
계		17	6	5	9	2	1	16	4	6	11	6		83	

※ 숫자는 출현된 빈도를 의미 함

\* 특정한 형태를 알수 없는 문양을 여기에 포함시켰음

이상에서 열거한 전통주택의 사용된 문양은 총 22종류의 문양이 나타났고, 나타난 문양은 길(吉)자문, 희(喜)자, 학문, 꽃문, 용문, 곡두문, 태극문, 불로초문, 귀면문, 빗살문, 등근문, 현무문, 덩굴문, 마름문, 여의두문, 용(用)자문, 만(卍)자문, 정(井)자문, 박쥐문, 아(亞)자문, 봉황문이었다. 주택의 구성요소 중 지붕과 창호에는 각각 10개의 문양이 나타났고, 난간에서는 5개, 대문에서 4개, 천장에 3개, 외부벽체에 2개, 편액에 2개, 처마에 2개, 공포에 1개, 물확에 1개의 문양이 나타났다. 지붕과 창호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문양이 사용되었고, 종류 또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주로 사용된 전체문양은 99개였지만, 전통주택에서 사용된 문양은 22개에 불과하므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전통주택 30채에서 문양은 총163회 수집되었고, 지붕(50%), 창호(28%), 난간(5%), 공포(4%), 대문(4%), 처마(3%), 편액(2%), 벽체(1%), 천장(1%), 내부벽체(1%), 물확(1%)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문양이 지붕, 창호에서 나타났고, 대

문, 난간, 공포, 처마, 편액에서 가끔 문양이 나타났으며, 그 외의 부위에서는 드물게 나타났다. <표 6>은 전통주택의 구성요소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 및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전통주택 각 구성요소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 및 사용빈도

주택부위	사용된 문양	문양의 사용 빈도 (백분율)	
건축 구성 요소	기단	0 (0%)	
	초석	0 (0%)	
	벽체	길(吉)자 /희(喜)자 2 (1%)	
	처마	곡두 /등근문 5 (3%)	
	공포	덩굴문 6 (4%)	
	지붕	일반지붕	꽃 /희(喜)자 /용 /곡두 /태극 /봉황 /불로초 /귀면문 46 (28%)
		담장지붕	학 /꽃 /용 /곡두 /봉황 /빗살문 35 (22%)
	대문	태극문 /등근문 /마름문 /현무 9 (4%)	
	굴뚝	0 (0%)	
	실내 구성 요소	기둥	0 (0%)
바닥		0 (0%)	
천장		1 (1%)	
창호		일반창호	아자 /용자 /만자 /정자 /꽃문 /빗살문 36 (22%)
		부속문	등근문 /마름문 /태극문 10 (6%)
내부벽체		여의두문 1 (1%)	
난간	박쥐문 /여의두 /희자문 /아자문 /마름문 7 (5%)		
장식 요소	물확	거북문 1 (1%)	
	편액	봉황문 /덩굴문 4 (2%)	
계	22	163 (100%)	

※백분율에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 3.3. 공간별 문양의 분석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공간별 문양을 분석하기 위해 30채의 주택을 체별로 문양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주택의 안채는 모두 사람이 거주하는 사유공간으로 조사허락을 받은 곳은 5채였다. 따라서, 안채 5채, 사랑채 30채, 부엌 30채, 마당 30곳을 대상으로 각 체별로 사용된 문양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우선 각 체별 문양을 정리하고, 다음에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비교가 용이한 안채 5채와 사랑채 30채를 중심으로 두 공간간에 문양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비교가 가능한 부위는 기와, 천장, 창호였다.

기와에 사용된 문양 중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꽃문, 용문, 귀면문, 불로초문 등으로 문양의 사용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사랑채에 봉황이 안채에 비해 더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천장의 마룻대공에 사용된 문양은 덩굴문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창호에서 사용된 문양 중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亞)자, 용(用)자, 정(井)자문양으로 문양의 사용에 있어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빗살문이 사랑채에 더 사용되었다.

안채, 부엌, 마당과 비교했을 때, 사랑채에서는 여의두문, 박



현무는 사령(四靈)문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사신문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북방을 수호하는 방위신으로 수호의 의미가 강조되는 문양이었고, 장수를 상징하였다. 이 문양은 대문빗창에서 사용되었고, 수호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귀면문은 도깨비의 형상을 의인화시킨 형상으로 이것은 시각이 예민하여 어떤 마귀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앙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다. 귀면문양도 지붕에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역시 수호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지붕문양들은 모두가 주택을 모든 방위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

전통주택에서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은 학, 거북, 불로초 등이 나타났고, 이것은 모두 십장생의 요소들이다.

학은 새들의 우두머리로 신비하고 영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고, 선비의 기상을 뜻하기도 하는 문양으로 지붕에서만 나타났다. 불로초는 불로장생을 의미하고, 지붕에서만 나타났고, 거북은 물확 표면에서만 나타나 장수를 상징하는 모티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이념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문양

전통주택에서 사용된 이념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문양은 태극, 회(囀)자, 만(卍)자, 덩굴문양 등이었다.

태극은 대문에서 많이 나타났고, 이것은 우주만물구성의 근본을 뜻하고 음양오행의 근원을 나타낸다. 이것은 집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발로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덩굴문양은 겨울에 견뎌내고 끊임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연면(延綿)의 뜻이 있었고, 신성한 건물을 뜻하는 의미의 2가지가 있었다. 하지만, 전통주택에서 덩굴문양은 공포, 천장의 마룻대공, 편액의 지붕을 받치는 부분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이 건물은 신이 사는 건물 즉, 신성한 건물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졌고, 이것은 도교의 영향이 크다.

회(囀)자문은 원래 부부가 서로 즐거움을 나눈다는 의미로 쓰였으나, 광의로 해석되어 천지와 음양의 화합을 의미하게 되어서, 군신의 즐거움, 부자간의 즐거움의 의미를 나타냈다. 이것은 지붕과 난간에서만 나타났고, 음양오행의 영향으로 나타난 문양이었다.

만(卍)자는 원래 고대의 주술에 관한 부적이나 부처의 가슴에 길상의 상징물로 표시되었던 것이었고, 그 모양에서 사방 끝이 늘어나 계속 이어지는 형태이므로 무한 장구하다는 뜻을 내포하여 윤회의 이념이 강한 문양으로 사용되었으며, 창호와 석장석에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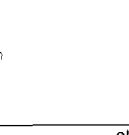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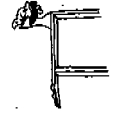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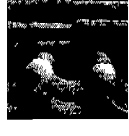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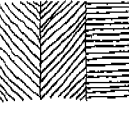


(5) 장식적인 문양

뜻은 있으나 뜻과 상관없이 사용되거나, 뜻이 전혀 없어 단순한 장식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전통건축의 문양으로는 마름문, 둥근문, 용(用)자, 정(井)자, 아(亞)자 등이 있었다. 마름

문은 땅을 상징하고, 둥근문양 하늘을 상징하지만, 대부분의 장소에서 장식을 목적으로 의미 없이 사용되어 밋밋한 표면에 변화를 주기 위한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정(井)자는 천체를 상징하고, 용(用)자, 아(亞)자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는 없는데, 이들 세 문양은 창호에서 나타난 문양으로 띠살의 형태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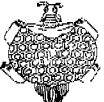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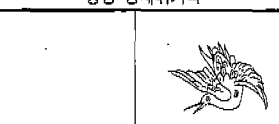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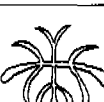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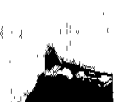


<표 9>는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을 전통주택의 구성요소별 의미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9>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유형화

유형	문양명	사용장소	상징성	예제	
				사진	그림
	길(吉)	모든 부위	한자의 의미가 길함으로 사용		
				청도문강고택	
	박쥐	사랑채 누마루의 난간	행복		
				양동 무점당	
	곡두	지붕, 처마	풍요를 기원		
				안동 북촌덕	
	길상 여의두	사랑채 누마루의 난간	만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람		
				양동 무점당	
	봉황	지붕, 편액	덕, 위엄		
				양동 무점당	
	빗살문	지붕의 옴미루	비를 뜻하고, 풍요를 기원		
				빗살문 (충청 송재휘가옥)	
	꽃문	모든 부위	가족의 화목		
				양동 낙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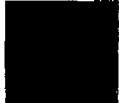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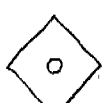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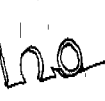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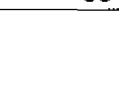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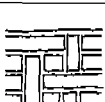
※사진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는 그림만 첨부함

<표 9> 계속

유형	문양명	사용장소	상징성	예제	
				사진	그림
벽사	용	지붕	상상속 동물들의 능력을 취합하여 만들어낸 용의 우두머리		
			충청 성위제가옥		
	현우	대문빗장	북방을 수호하는 방위신		
				안동 충효당	
장수	귀면	지붕	재앙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음		
					충청 송재취가옥
장수	학	지붕	심장생의 요소들로 장수의 의미		
				안동 북촌덕	
	거북	물확			
				월성 손동만씨 가옥	
벽로초	지붕				
				월성 손동만씨 가옥	
태극	대문	우주만물구성의 근본(음양오행)			
				월성 손동만씨 가옥	
		덩굴	공포, 미륵대공, 편액	연면, 신성함(도교)	
					양동 무첨당
이념	희(喜)	지붕, 난간	천지와 음양의 화합(음양오행)		
만(萬)	창호, 난간	윤희(輪囷)			
					청도문강고택

※사진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는 그림만 첨부함

<표 9> 계속

유형	문양명	사용장소	상징성	예제			
				사진	그림		
장식	정(井)	창호	천체				
						월성 손동만씨 가옥	
				등근문	광창, 처마끝		
				양동 이원봉가옥			
장식	정(井)	창호	천체				
						충청 성위제 가옥	
				용(用)	창호	뜻 없이 단순한 조형적 요소로 사용됨	
				안동 북촌덕			
아(阿)	창호, 난간						
				안동 북촌덕			

※사진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는 그림만 첨부함

#### 4. 결론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실태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 할 수 있었다.

한국전통주택 30채에서 문양은 총163회 수집되었고, 지붕(50%), 창호(28%), 난간(5%), 공포(4%), 대문(4%), 처마(3%), 편액(2%), 벽체(1%), 천장(1%), 내부벽체(1%), 물확(1%)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문양이 지붕, 창호에서 나타났고, 대문, 난간, 공포, 처마, 편액에서 가끔 문양이 나타났으며, 그 외의 부위에서는 드물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에서 사용된 문양은 건축구성요소에서는 벽체, 처마, 공포, 지붕, 대문에서만 나타났고, 실내구성요소에서는 천장, 창호, 머름간, 난간에서만 나타났으며, 장식요소에서는 물확과 편액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문양은 모든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특정 구성요소에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별 주택에서 나타난 문양은 사랑채에서 다른 채에 비해

특별히 수호의 기능, 출세를 기원하는 문양이 다른 채에 비해 강조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외 공간별 문양의 뚜렷한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은 주택의 각 구성요소별로 상징적 의미가 뚜렷이 차이가 나고, 그 의미 및 사용장소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전체문양은 99개였지만,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은 22개만이 나타났다.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을 상징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유형화 할수 있고, 이것은 길상의 문양, 벽사·수호를 위한 문양,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 이념적인 문양, 장식적인 문양으로 나눌 수 있었다.

길상의 의미를 가진 문양은 길(吉)자, 박쥐문, 여의두문, 곡두문, 봉황문, 빗살문, 꽃문이 사용되었다. 길(吉)자는 공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되었고, 행복을 상징하는 박쥐문과, 뜻대로 되라는 의미의 여의두 문양은 남성공간인 사랑채 누마루의 난간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남성 중심의 사회활동이 이루어진 조선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랑채에 이런 문양을 사용한 것은 입신양명을 희망한 의미로 해석된다. 곡두, 빗살문은 풍요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하늘과 가까운 지붕, 처마에 나타났고, 봉황은 위엄과 덕을 상징하여 지붕에 주로 사용되었다.

벽사·수호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용, 귀면, 현무문양이 있었다. 용, 귀면은 지붕에서만 사용되어 귀신이나 잡귀를 물리치려 하였고, 현무문양의 대문빗장을 사용하여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희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수를 상징하는 학과 불로초는 지붕에서만 나타났고, 거북은 몰확에서 나타났다.

이념적인 의미의 문양은 태극, 회(囀)자, 만(卍)자, 덩굴문이 있었다. 음양오행의 영향으로 나타난 문양은 태극문과 회자가 사용되었다. 태극문양은 대문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집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회(囀)자는 천지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창호와 난간과 지붕에서 나타났다. 불교의 영향으로 생겨난 문양에는 만(卍)자가 있었고, 윤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창호와 쇠장식에서 사용되었다. 도교사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덩굴문은 신성한 건물임을 뜻하고, 지붕을 받치는 공포, 마룻대공에서 나타났다.

장식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전통건축의 문양은 마름문, 둥근문, 용(用)자, 정(井)자, 아(亞)자문이 있었다. 마름문은 문양이 사용된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용되었고, 둥근문은 처마끝, 광창에서 사용되었다. 용(用)자, 정(井)자, 아(亞)자문은 창호, 난간에서 나타난 문양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이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와 상징성을 유형화하는 단계에서 그쳤으나, 이러한 문양들이 현대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분석하여 전통문양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현대에서 이해하는 문양을 분석하여 실내 및 건축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통문양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현대의 공간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실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1. 경상북도,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을지사, 1979
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 대사전, 부산동아, 1999
3.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전통문양, 국립중앙박물관, 1998
4. 김광언, 한국의 옛집, 서울:마당, 1982
5. 민경현, 한국고대문화의 흐름과 의장기법, 예경, 1998
6.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7. 신상재, 한국인의 생활문양, 선진문화사, 1980
8.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상·하), 열화당, 1976
9. 신영훈 외, 한옥의 건축도예와 무늬, 기문당, 1990
10. 안상수, 한국전통문양집, 안그래픽스, 1986
11. 오근재, 한국문양의 전개, 미진사, 1985
12. 임영주, 한국문양사, 미진사, 1983
13. 임영주, 한국전통문양자료집, 미진사, 1986
14. 조경현, 꽃담, 대원사, 1989
15. 조르쥬 나타프, 상징·기호·표시, 열화당, 1987
16. 진상행, 한국인의 생활문양, 서울신진문화, 1987
17.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한국의 무늬, 예맥출판사, 1985
18. 허균, 전통문양, 대원사, 1995
19. 허버트 리드, 도상과 사상, 열화, 1982
20.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21. 김현중, 한국현대건축의 형태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22. 김형수,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전통을 수용한 현대 건축양식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23. 류호정, 한국 현대주택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4. 신인호, 한국 전통주택의 실내채색 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8
25. 심귀옥, 한국부작문양의 조형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26. 오혜경, 조선시대 상류주택 실내공간의 디자인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27. 유재우, 우리나라 단청의 문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28. 이윤정, 한국주택의 실내디자인 이미지 유형 및 특성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29. 이지민, 한국 전통문양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30. 전은숙, 조선시대 남자의복에 나타난 문양과 복색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31. 정도화, 한국문양의 양식적특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5
32. 홍진경, 한국전통주택 실내마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33. 유근준, 한국문양의 집성 및 그 현대화에 관한 미학적 연구, 문교부 학술 연구 조성비에 관한 연구보고서 27권, 1968

<집수 : 2001. 7. 31>